

축산업계

소식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심포지움 개최



지난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화여대 경영관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이우재) 주최로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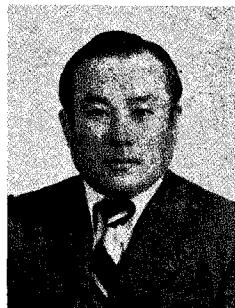
제1부에서는 ▲유종완(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박광서(전남대) 교수가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와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권영근(건국대) 교수가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의 현황과 그 영향」, ▲박진도(충남대) 교

수가 「농수축산물 수입자유화론 비판과 한국농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에 들어갔다.

종합토론에는 한국포도회 김성순 회장, 농협대 서기원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우 연구위원, 단국대 장원석 교수, 서울대 정운찬 교수, 농수축산유통연구원 황민영 상무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제2부에서는 일본 동경농공대학 농학부 가지이 이소시 교수가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있었다.

한국가금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오세정 회장 연임—



▲오세정 가금학회장

한국가금학회는 제6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지난 9월 22일 축산시험장 회의실에서 전국의 회원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간중 사업보고, 기금현황 보고에 이어 89년도 결산 및 90년도 사업(안)과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학술이사 김선중 교수(서울대)에게 공로패를, 전남대 최정옥 교수에게 학술상을 각각 증정하고 학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일웅(대한제당), 박수남(복지농장), 장대석(풍진화학), 송상정(아람농장), 박정래(원일농장), 안성태(안일농장) 씨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고 종신회원 29명에게는 회원패를 전달했다.

임원개선에서는 현행 오세정 회장을 위시한 회장단을 만장일치로 유임시키고 이사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하였다.

회의는 1년간 일본 교환교수로 가있던 오세정 회장의 「일본의 양계산업 실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학술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자동면제

정부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토지소유권 이전시 일정기간안에 증여세 면세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비과세 수속절차 없이도 증여세가 면세되도록 관계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재지주가 아닌 자경농민에게 해당된 이번 방침은 농민이 관련법을 잘몰라 비과세 절차를 기간내 밟지 못해 증여세를 내는 사례가 많아 농민보호차원에서 상속농지면세에 대한 신청 의무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축산분뇨대책회의 개최 —환경청 주관으로 축산인 의견수렴—

환경청은 지난 12일 환경청 회의실에서 본회를 비롯하여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축협, 농림수산부 등이 모인 가운데 축산분뇨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축산업의 실상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시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열렸다. 본회에서는 이규성 총무부장이 계분처리를 위해 개선해야 될 사항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환경청 폐기물국장은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양축가도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환경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으로 수질의 오염을 줄이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그 방법은 폐기처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퇴비화로 재이용 즉 상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청은 상품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도 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양축가들이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할 자금력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도 재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다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비료관리법 운용에 관한 유권해석 —축분 가마니, 마대에 운반 가능—

정부는 양축농가가 생업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마니, 마대, 지대 등에 담아서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생산 판매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농축산물의 부산물을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환경위생 개선과 농림축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다른 비료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허가 또는 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GPS 수입 감축조절 —90년 이후 생산과잉 예측—

농림수산부는 육용실용계가 91년부터 생산과잉이

예측되고, 종계는 90년부터 과잉생산이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원종계는 금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생산분을 포함하여 감축조절과 금년도 원종계 수입과잉으로 90년부터 과잉될 종계생산 상황과 91년도부터 과잉생산될 실용계의 생산현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본회를 중심으로 원종계농장과 협의하여 금년에 수입할 원종계와 국내생산 원종계를 감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계 및 원종계 수입 동향

		'86			'87			'88			'89		
종 계 (PS)	수입물량 (전년대비)	기수입		계 획		계		기수입	계 획	계	기수입	계 획	계
		105,522수	% (53)	55,476	(115)	63,683		140,872	56,800	197,672	(310)		
원종계 (GPS)	수입물량 (전년대비)	42,420수	46,107	41,020		26,606	39,024		65,630		(160)		
		%	(109)	(89)									

중앙대 축산학과 세미나 개최 —학과 개설 20주년 기념으로—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축산학과가 개설 20주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지난 9월 23일(토) 안성 제2캠퍼

스에서 재학생 및 졸업동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 발표는 ▲중국의 축산업 현황(정인효 북경대 교수), ▲사료산업 현황과 전망(박천규 삼양사 과장), ▲양계산업의 변천과 발전방향(임한섭 대성양계 사장), ▲송아지 사양관리(최일 상지대 교수), ▲번식돈의 사양관리(진성기 대왕축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하는 축제가 열렸다.

축산업 심의위원 18명 구성

—양계업계 정태원 회장, 강희구, 김영환씨—

축산법 시행령에 의거 발족된 축산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병기 농림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보사부, 상공부 등 정부기관과 각 축산단체 회장 및 양축가 대표들로 18명이 위촉되었다.

양계업계에서는 본회 정태원 회장과 김영환 이사, 양계조합 강희구 조합장이 위촉되었다.

미국 육계산업시찰단 출국

—10월 6일 귀국 예정—

미국 육계산업을 견학하기 위한 시찰단 8명이 미국 사료곡물협회 주관으로 지난 21일 출국하였다.

10월 6일까지 15일 동안 미국 일칸사스, 켈리포니아, 오하이오, 워싱턴지역 등의 닭고기 생산현장, 유통, 가공분야를 비롯하여 소비시장까지 둘러볼 예정이다.

시찰단은 다음과 같다.

김풍립, 정용길, 김동희, 김홍국, 윤종계, 신대식, 정문성, 박영인